

樣式의 ‘에’ 와 素材의 ‘에서’*

李 南 淳**

I. 序 論

우리는 한 언어현상이 하나의 一律的인 規則으로서 설명될 수 없다는 데에서 좌절과 회의를 맛보게 된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언어현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기보다는 규칙으로 설명하려는 욕심을 부리기도 한다. 그리하여 그것이 무리한 것인 줄을 알면서도 스스로 奉強附會의 오류에 빠지는 위험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점에서 본고 역시 예의는 아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접하는 언어의 현실이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매우 제한된 범위의 것이기가 쉽다. 따라서 제한된 범위의 언어사실로서 언어현상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규칙으로 설명하기란 쉽지 않은 일인 것이다. 또한 이제까지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언어사실들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연구들의 성과를 극복하고 이들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해 보인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인 것이다. 새로 발견된 언어사실들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기에 앞서서 기존의 연구업적들을 비교 검토하면 새로운 해석의 실마리가 발견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것들에 파묻혀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국어의 격법주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격의 득

* 본고는 한국언어학회 여름연구회(1983. 7. 18~22)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同門 · 덕성여대

립된 품사 설정의 여부에 대한 논의를 비롯하여 최근에는 일부 격표시 형태에 대한 樣態的인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¹⁾ 그러나 본고에서 다루려고 하는 處格의 ‘에, 에서’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處所的 해석의 언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어에서 이른바 處格의 설정은 그 논의의 폭이 문장 속에 나타나는 名詞와 動詞의 우연적인 遭遇들에 한정되어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名詞가 지닌 處所的인 의미자질이나 動詞가 지닌 動作的 혹은 場所移動的 의미자질이 處格의 설정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생각이 깊게 작용하고 있었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統辭的인 면에서의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도 작용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국어의 현실을 그 속에 파묻혀서 바라보기보다는 관망하는 위치에서 바라본다면 處格의 설정에 대한 處所的인 해결이 필연적이 아닌 우연적인 사실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식하게 된다. 설혹 처소적인 해결이 국어의 處格 설정에 일말의 가능성은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處格의 범주를 미리 설정하고 스스로 논의의 범위를 제한하는 自家撞著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고는 주로 이른바 處所를 나타내는 형태로서 논의되어 온 ‘에’와 ‘에서’에 대한 것이지만 격범주 전체에 대한 試論的인 성격을 아울러 띤다. 그것은 국어에서 격의 범주로서 다루어져 왔던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기본적인 태도이기 때문이다.

處所의 ‘에, 에서’에 대한 논의들은 주로 處所性 혹은 方向性, 所在 혹은 指向, 離脫 등의 의미들과 관련을 맺으면서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들 의미는 사실상 ‘에, 에서’의一部만을 과악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에, 에서’가 기본적으로 處格을 나타낸다고 과악이 된 경우에 處格이 단순하게 문장의 성분으로 實現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는 논의도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문장의 성분으로 실현되기

1) 임홍빈(1974)의 ‘로’에 관한 연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위한 통사적 절차인 것이 굳이 處格이라고 命名된 것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處所性(所在)과 方向性(指向, 離脫)의 處所的 의미와 處格의 格의 의미를 구분하려는 데에서 생기는 것이다. 處格이 단지 格의 인 位置만을 나타내어 준다면 그때의 處格의 命名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문제이며 또한 處格의 '에'가 문장의 성분으로 실현될 때 그것이 문장 속의 어떤 요소에 통합되어 나타나야 하는가가 문제이다. 만일 이때 '에'가 處所를 나타내는 名詞에 統合되어 나타난다는 논의가 받아들여진다면 處格의 格의 의미와 處所性, 方向性 등의 處所的 의미가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본고에서 필자가 논의하려는 것은 '에, 에서'가 적어도 處所의 관점에서만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에' '에서'는 문장 속에서 제각기 動詞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動詞가 나타내는 動作이나 狀態의 樣式과 素材를 각각 표시한다는 것이다.

II. 所在와 指向

그동안 處所의 '에'에 대한 연구는 '에게, 께' 등과 관련시켜서 그것이 통합되는 名詞의 성격에 따라 '에,에게, 께' 등을 취한다는 통합상의 문제에 중점을 두거나 서술용언의 문형에 따라 제약을 받으면서 쓰인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에'의 의미와 격기능을 밝히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에서'에 대한 연구는 '서'의 역사적인 발달을 고려하는 입장에서 '서'와 '있(有)-'의 관계에 중점을 두거나 '에서'의 격기능 소유의 여부를 따지는 데에 중점을 두어왔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에'와 '에서'의 문장속에서의 대등한 비교는 이루어지지 않고 '서'가 차격을 지배한다는 사실에 집착하여 '에'를 다루는 범위내에 그 연구의 폭이 한정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處所의 '에'가 處所性과 方向性(洪允杓 1978), 혹은 所在

와 指向(朴良圭 1972)을 나타내며 ‘에서’가 ‘에’에 ‘서’가 통합된 형태로서 所在(朴良圭 1972)를 나타낸다고는 하지만 문장 속의 어떠한 환경에서 所在와 指向, 處所와 方向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분석은 올바른 방향에서 이루어져 온 것 같지 않다.

우리는 方向性과 處所性의 處所的 기능이 한편으로는 ‘에’가 통합되는 名詞가 [+place]나 [+time], [+concrete]의 의미자질을 갖추어야 한다는 선택제약을 전제하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 共起하는 動詞의 [±motion]의 의미자질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논의를 이미 대하고 있다(洪允杓 1978). 이러한 논의의 이면에는 處所의 ‘에’가 그것이 통합되는 名詞와 그와 共起하는 動詞 사이에 處所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에’는 그것이 통합되는 名詞와 그와 共起하는 動詞 사이의 處所의 관계를 나타내어 준다고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하는 이론바 處所의 ‘에’란 반드시 名詞의 [+place]나 [+time], [+concrete] 등의 의미자질들과 선택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며 또한 動詞의 [±motion] 등의 의미자질들에 의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에’는 구체적인 의미를 지니는 ‘장소’ 라든가 ‘시간’ 등의 구체적인 대상에만 국한되어 쓰이는 것이 아니며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의미에까지도 관계를 맺고 있다.²⁾ 또한 處所性과 方向性은 ‘동작’([+motion])이나 ‘상태’([−motion])의 어느 한 쪽과만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며 서로 엇갈려서 관계를 맺기도 하는 것이다.³⁾ 무엇보다도 문제해결의 핵심이 되는 것은 處所의

2) 예컨대 (a) “철수가 학교에 다닌다.”, (b) “철수가 그 학교에 다닌다.”에서 (a)의 ‘학교’는 추상적 개념으로 쓰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a)가 ‘배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한편 (b)의 ‘학교’는 특정적(definate)인 것이 되어 구체적인 장소를 나타내게 된다. (a), (b)에서 ‘학교’가 추상적 이거나 구체적이거나 관계없이 ‘에’는 처소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학교’가 지니는 구체적, 추상적 개념은 명사가 갖는 품적지시성과 특정지시성의 문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처소의 문제와 관련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3) “철수가 운동장에서 논다.”와 “철수가 운동장에 있다.”에서 전자는 動作을

方向性(指向)과 處所性(所在)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다.

- (1) 그. 철수가 학교에 있다.
ㄴ. 철수가 학교에 간다.
- (2) 그. 동상이 네거리에 있다.
ㄴ. 동상이 네거리에 세워진다.

(1)은 處所를 다루는 논의들에서 자주 언급되는 類型의 예들이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빌어서 (1)의 '에'가 지니는 處所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우선 (1-그)에서 '학교'는 [+place], [+concrete]의 의미자질을 가지며 '있-'이 [-motion]의 의미자질을 가지므로 '에'가 處所性(혹은 所在)을 가진다고 이해된다. 또한 (1-ㄴ)에서 '학교'는 [+place], [+concrete]의 의미자질을 가지며 '가-'는 [+motion]의 의미자질을 가지므로 이때의 '에'는 方向性(혹은 指向)을 가진다고 이해된다. 한편 (2)에서 '네거리'는 [+place], [+concrete]의 의미자질을 가지며 (2-그)은 '있-'이 [-motion]의 의미자질을 가지므로 '에'가 處所性을, (2-ㄴ)은 '세워지-'가 [+motion]의 의미자질을 가지므로 '에'가 方向性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의 문제점은 '에'가 무엇의 處所이며 무엇의 方向을 나타내는가 하는 점에 있다. 朴良圭(1972)의 논의는 이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라고 생각된다. 즉 "文形의 제약을 받으면서 실현되는 치격형은 자동사의 주어나 목적어의 所在 또는 指向을 표시하는 관계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는데 '에'가 문형에 따라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의 所在 또는 指向을 표시한다고 한 것은 處格의 '에'가 그것이 통합되는 명사와 주어, 목적어 등의 명사 사이에 고정적인 치소의 관계가 없음을 지적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에'가 나타내는 치소의 의미는 명사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주어, 목적어 등의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지시대상

나타내는 동사가 쓰인 경우이고 후자는 狀態를 나타내는 動詞가 쓰인 경우이지만 '에서'나 '에'가 모두 處所性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과만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며 動詞가 나타내는 動作이나 狀態의 處所와도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된다.

(1-ㄱ)에서 ‘에’는 所在를 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철수’의 所在가 ‘학교’임을 표시한다. 또한 ‘있-’이 나타내는 存在 狀態의 處所가 ‘학교’임을 표시하기도 한다. 한편 (1-ㄴ)에서 ‘에’는 ‘철수’의 指向하는 곳이 ‘학교’임을 표시한다. (1-ㄴ)에서 ‘학교’는 ‘철수’의 所在도 아니며 動詞 ‘가-’가 나타내는 動作의 處所도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2-ㄱ)에서 ‘에’는 ‘동상’의 所在와 ‘있-’이 나타내는 存在 狀態의 處所를 동시에 표시하는 반면 (2-ㄴ)에서 ‘에’는 ‘동상’의 所在도 표시하지 않으며 動詞 ‘세워지-’가 나타내는 動作의 處所도 표시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1-ㄱ), (2-ㄱ)의 ‘에’는 ‘所在’를 표시하며 (1-ㄴ), (2-ㄴ)의 ‘에’는 方向을 표시한다. ‘에’가 지니는 所在의 의미는 動作(이나 狀態)의 處所이자 動作(이나 狀態)主體의 所在이기도 한 것이며 ‘에’가 지니는 指向의 의미는 動作의 指向이기도 하며 동시에 動作主體의 指向이기도 한 것이다.

- (3) ㄱ. 철수가 기차에 탔다.
 ㄴ. 철수가 옥상에 낙하산으로 내린다.
 ㄷ. 철수가 지붕에 올라간다.
 ㄹ. 철수가 1층에 내려간다.
 ㅁ. 철수가 의자에 앉는다.
 ㅂ. 철수가 내 옆에 선다.
- (4) ㄱ. 철수가 기차에 탔다.
 ㄴ. 철수가 (낙하산으로) 옥상에 내렸다.
 ㄷ. 철수가 지붕에 올라갔다.
 ㄹ. 철수가 1층에 내려갔다.

(3)에 제시된 예들에서 ‘에’는 주어인 ‘철수’의 所在가 ‘기차, 옥상, ……, 내 옆’임을 표시하지 않는다. 또한 ‘타-’, ‘내리-’, ……, ‘서-’ 등의 動作이 이루어지는 處所를 표시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3)의 ‘에’는 ‘철

수'의 動作이 指向하는 곳이 '기차, 옥상, ……, 내 옆'임을 표시한다. (3)의 예문들이 (4)와 같이 과거사실로 나타나게 되면 '에'가 所在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사건의 시간이 과거이기 때문이지 '에'가 指向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다. '기차, 옥상, ……, 내 옆' 등은 動詞 '타-, 내리-, ……, 서-'가 나타내는 動作의 處所가 될 수 없으며 動作主體인 '철수' 역시 '기차, 옥상, ……, 내 옆'에 所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指向이 과거시간에 일어났음을 보이는 것뿐이다. 다시 말하면 '철수'의 動作 자체는 '기차, 옥상, ……, 내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철수'의 所在 역시 '기차, 옥상, ……, 내 옆'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때의 '에'는 指向을 나타낸다. 따라서 (4)의 '에'는 '철수'의 所在도 動作의 處所도 나타내지 않으며 '철수'의 指向과 動作의 指向을 동시에 나타낸다.

- (5) ㄱ. 철수가 손에 봉대를 감는다.
- ㄴ. 철수가 머리에 모자를 쓴다.
- ㄷ. 철수가 발에 신을 신는다.
- ㄹ. 철수가 가슴에 훈장을 단다.

(5)는 '에'가 목적어의 處所를 나타내는 문장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 데 朴良圭(1972)는 이들 '에'가 所在와 指向의 관계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목적어의 처소를 나타내는 경우의 '에'는 指向의 의미만을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5)에서 '손, 머리, 발, 가슴'은 動作主體인 '철수'의 所在도 아니며⁴⁾ 목적어 '봉대, 모자, 신, 훈장' 등의 所在도 아니다. 또한 動詞 '감-, 쓰-, 신-, 달-'이 나타내는 動作의 處所도 아니다. 따라서 이때의 '에'는 指向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이 경우는 주어인 '철수'와 '손, 머리, 발, 가슴'이 所有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주어인 '철수'가 '손, 머리, 발, 가슴'의 所在가 될 수는 있다.

- (6) ㄱ. 철수가 마당에 물을 뿌린다.
 ㄴ. 철수가 책상에 꽃병을 놓는다.
 ㄷ. 철수가 꽃에 물을 주었다.
 ㄹ. 철수가 유리창에 돌을 던졌다.

(5)는 주어인 ‘철수’와 ‘손, 발, 머리, 가슴’이 非分離의 관계에 있는 경우이지만 (6)은 주어인 ‘철수’와 ‘마당, 책상, 꽃, 유리창’은 分離의 관계에 있는 경우이다.⁵⁾ 그러나 (5)와 (6)은 ‘에’가 指向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어떤 차이도 보이지 않는다. (6)에서 ‘마당, 꽃, 책상, 유리창’은 ‘철수’의 所在도 아니며 목적어 ‘물, 꽃병, 돌’의 所在도 아니며 또한 動作이 일어나는 處所도 아니다. (6)의 ‘에’는 주어인 ‘철수’의 動作이 指向하는 곳이 ‘마당, 책상, 꽃, 유리창’임을 나타낸다. 결국 ‘所在’와 ‘指向’은 주어나 목적어의 ‘所在’와 ‘指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動作의 處所와 指向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⁶⁾

■. 樣式의 ‘에’

處所의 ‘에’가 지닌 所在와 指向 혹은 處所性과 方向性的 관계의미는 선택적 처소의 의미로서 통합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 (7) ㄱ. 철수가 김선생님 연구실에 있다.
 ㄴ. 철수가 부산에 산다.
 (8) ㄱ. 물이 물통에 가득 찬다.

5) 分離와 非分離의 관계에 대한 것은 박양규(1972)를 참고할 것.

6) 이 점에 관한 한 지금까지의 논의들은 매우 불투명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박양규(1972)의 所在와 指向은 주어 혹은 목적어의 所在와 指向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홍운표(1978)의 處所와 方向은 주어(혹은 목적어)의 處所와 動作의 方向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후술될 것이지만 여기서 필자가 밝힌 所在와 指向의 의미는 ‘에, 에서’의 논의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된다.

- ㄴ. 냄새가 옷에 뱀다.
 (9) ㄱ. 옷이 비에 젖는다.
 ㄴ. 집이 불에 탄다.

(7)의 '에'는 所在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있-' '살-' 등 주어의 狀態를 나타내는 動詞들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에'가 '철수'의 '所在'도 표시하는 동시에 '철수'의 存在와 居住의 處所를 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8)에서 '에'는 指向을 나타내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9)에서 '에'는 指向을 나타내어 준다고 할 수 없다. (8)에서 '에'가 통합되는 '물통, 옷'은 공간적인 영역을 가지는 것으로서 [+place]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9)에서 '에'가 통합되는 '비, 불'은 공간적인 영역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place]의 의미자질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9)에서 공간적인 영역을 가지는 것은 '비, 불'이 아니라 오히려 '옷, 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指向이란 場所移動的 意味를 전제할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서 (9)의 '에'가 指向의 의미를 가지려면 주어인 '옷, 집'이 '비, 불'로의 場所移動을 해야 한다. 그러나 (9)에서는 '옷, 집'이 '비, 불'로의 場所移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가 통합되는 '비, 불'이 주어인 '옷, 집'으로의 場所移動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8)과 (9)에서 나타나는 指向은 그 方向이 서로 역방향에 있게 된다. 이것은 '에'가 場所移動의 方向 즉 指向에 관한 한 무관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7)~(9)에서 보았듯이 '에' 자체는 所在나 指向의 의미기능을 갖는 것이 아니다. (7)에서 '에'가 가지는 所在의 의미는 '연구실, 부산'과 '있-, 살-' 사이에서 나타나는 處所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의미일 뿐이며 (8)~(9)에서 '에'가 나타내는 指向의 의미 역시 '에'가 통합되는 명사와 술어동사 사이의 처소적인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의미일 뿐이다. '에' 자체는 所在나 指向에 관한한 中立的이며 선택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所在나 指向은 '에'가 處所

의인 관계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선택적 채소의 의미이다.

‘에’는 반드시 [+place]의 의미자질을 가지는 명사에만 통합되어 쓰이는 것이 아니다. [-place]의 의미자질을 가지는 명사들에도 통합되어 쓰인다.

- (10) ㄱ. 물을 물통에 채운다.
 ㄴ. 냄새를 옷에 배게 한다.
 ㄷ. 옷을 비에 젖신다.
 ㄹ. 집을 불에 태운다.
 ㅁ. 개가 기차에 치였다.
 ㅂ. 깡통이 밭에 채였다.
- (11) ㄱ. 철수가 여행에 지쳤다.
 ㄴ. 철수가 운동에 미쳤다.
 ㄷ. 철수가 미인계에 녹았다.
 ㄹ. 철수가 의리에 살았다.
 ㅁ. 철수가 정에 약하다.
 ㅂ. 철수가 이론에 밟다.

(10)에서 ‘물통, 옷, …, 밭’에 통합되는 ‘에’가 채소를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있을 것이나 (11)과 같은 문장에서 ‘여행, 운동, ……, 이론’에 통합되는 ‘에’가 채소를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하면 (10)의 ‘물’과 ‘물통’, ‘냄새’와 ‘옷’, ‘옷’과 ‘비’, ‘집’과 ‘불’, ‘개’와 ‘기차’, ‘깡통’과 ‘밭’ 사이에는 각각 處所的인 관계가 성립될 수도 있으나 (11)의 ‘철수’와 ‘여행, 운동, 미인계, 의리, 정, 이론’ 사이에는 각각 處所的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에’의 기능이 본질적으로 處所를 표시하는 기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0)에서 ‘물통, 옷, …, 밭’은 動作이 일어나는 表面(surface)이나 場所(place)의 樣式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11)에서 ‘여행, 운동, …, 이론’은 動作 自體의 樣式이라고 할 수 있다.⁷⁾ 예컨대 (10-ㄱ)에서 ‘채우-’가 나타내는 動作은 ‘물통’에 의하여

7) 이기동(1981)에서 본고의 ‘樣式’과 유사한 것이 보이는데 ‘X가 Y에 —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물통'은 動作의 處所的 樣式으로서 채택되는 것이다. 한편 (11-근)에서 '철수'가 사는 動作은 '의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철수'의 삶은 '의리'의 樣式으로 영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0)에 나타나는 動詞들은 공간적 영역을 나타내는 명사들에 의해 動作의 樣式이 표시되었지만 (11)에 나타나는 動詞들은 공간적 영역을 나타내는 명사들에 의해 動作의 樣式이 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10)의 '에'는 處所的 樣式을 표시할 수 있는 반면 (11)의 '에'는 處所的 樣式을 표시할 수 없다. 動詞의 [±motion]의 의미자질과 명사의 [±place]의 의미자질은 所在와 指向의 處所의 의미를 구별하는 데에는 충분한 요소들일지 모르지만 '에'의 본질적인 기능을 밝히는 데에는 충분한 요소라고 할 수 없다. 所在나 指向은 '에'가 지닌 기능의 차소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박양규(1972)는 '에'가 지닌 格의인 意味와 '에'가 통합되는 명사의 관계의미를 구별하고 있다. 그리하여 所在와 指向은 명사가 서술어에 통합되는 관계를 나타내어주는 관계의미라고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에'의 格의인 의미와 체언의 관계의미가 어떻게 구별되는가 하는 것이다. 사실상 '에'의 格의인 의미와 체언의 관계의미는 문장의 서술어와의 관계 속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의미는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문장 속에서 다른 성분들과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관계는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10)의 '에'와 (11)의 '에'는 名詞가 서술어에 통합되는 관계를 나타내

다' 구조에서 'Y'가 '바탕'이며 'X'가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하였다. 결국 모습(X)-바탕(Y)의 관계에서 'X'와 'Y' 사이의 관계는 動詞에 의해 규정되는 것인데 '에'의 기본적의미를 장소에 두고 그 장소위(Y)에서 X가 움직이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Y'가 오히려 動作의 '모습'('주어' 등의 모습이 아닌)이라고 생각된다. 본고의 '樣式'은 'X가 Y에 V'의 구문에서 'Y'와 'V'의 적절적인 관계이며 'X'와 'Y'의 관계는 아니다. 'X'와 'Y'의 관계는 'V'의 性格이 어떠한 것이나에 따라 항상 流動的인 것이기 때문이다.

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다만 (10)의 ‘에’는 처소를 나타내는 명사에 통합되었으므로 처소의 관계의미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문장은 하나의 動詞와 몇개의 名詞들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몇개의 명사들은 서술어로 쓰이는 動詞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어형의 변화를 보이게 된다.⁸⁾ 이러한 명사의 어형 변화는 動詞 自體가 지니고 있는 속성들의 반사체라고 할 수 있다. 動詞는 그 자체가 이미 行爲者, 動作의 對象 등을 그 속성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문장 속에 나타나는 몇개의 명사가 그러한 動詞의 속성 중 어느 것을 실현시켜 주는 것이라면 따라 名詞의 語形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이/가’, ‘을/를’ 등은 각각 動詞가 가진 속성 중의 行爲者, 對象 등을 표시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문장이 나타내는 사건은 행위자, 행위대상 등 동사의 속성이 명사에 의해 문장상에 실현됨으로써 표시되어지는 것인데 이때 동사가 나타내는 動作은 항상同一하게 표시되는 것이 아니다. 動作은 시간과 공간, 행위양식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게 표시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시간과 공간의 차이나 행위양식의 차이를 표시하는 것이 ‘에’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철수가 있다’와 ‘철수가 집에 있다’는 모두 動詞 ‘있-’이 쓰이고 있는 문장이지만 전자와 후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전자에서는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단순하게 ‘철수’의 ‘존재’를 표시하는 것이지만 후자에서는 ‘철수’의 ‘존재’란 ‘학교’라는 공간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자에서 ‘철수’의 存在樣式은 시간이나 공간에 제약되는 것이 아닌 반면 후자에서 ‘철수’의

8) Hockett (1958:234)는 格을 動詞와 관련하여 문장구조에 참여하는 명사의 굴곡형태라고 하였다.

“Cases are inflected forms for nouns which fit them for participation in key constructions relative to verbs”.

存在樣式은 '학교'라는 공간에 의하여 제약되는 것이다. '에'가 지니는 樣式 표시의 기능은 바로 이점에 있는 것이다.⁹⁾

- (12) ㄱ. 철수는 제풀에 지쳤다.
ㄴ. 철수는 공부에 지쳤다.
- (13) ㄱ. 철수는 고기에 질렸다.
ㄴ. 철수는 겁에 질렸다.
- (14) ㄱ. 철수는 부산에 살았다.
ㄴ. 철수는 바다에 살았다.

(12), (13)에서 '에'는 處所를 표시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제풀'과 '공부', '겁'과 '고기'가 動詞 '지치-'와 '질리-'에 각각 통합되는 관계는 前者가 後者의 樣式이라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하면 '철수'의 지친 상태는 '제풀'이나 '공부'의 영역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며 철수의 '질린 상태'는 '겁'이나 '고기'의 영역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14-ㄱ)의 '에'는 처소를 표시한다고 생각되지만 (14-ㄴ)의 '에'는 처소만을 표시한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14-ㄱ)은 '철수'의 거주지가 '부산'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에'가 처소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14-ㄴ)은 '철수'의 거주지가 '바다'임을 의미할 수도 있으나 오히려 '철수'의 삶이 '바다'에 의하여 영위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

9) '에'의 樣式 표시의 기능은 다음 예들을 비교하면 더욱 뚜렷해진다.

- (1) 철수가 여행에 지쳤다.
- (2) 철수가 여행으로 지쳤다.
- (3) 철수가 지쳤다(철수의 건강이 비정상적이다).

(1)은 "철수가 지친 것은 '여행'"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사실상 철수의 건강상태가 비정상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한편 (2)는 철수의 건강상태가 비정상적이며 그 비정상적인 상태는 '여행'에 의해서 초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에서 '지쳤다'는 '여행'의 영역 속에서만 가능한 것인 반면 (2)에서 '지쳤다'는 '여행'의 영역 속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1)은 (3)의 의미를 나타낼 수 없지만 (2)는 (3)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에'의 樣式 표시의 기능은 곧 (1)에서와 같이 '에'가 동작의 영역을 제약하는 기능을 말하는 것이다. 樣式의 개념은 後稿(언어 8권 2호(1983) 게재예정)에서 더욱 보완될 것이다.

같다. (14-ㄱ)에서 ‘철수’는 ‘부산의 사나이’가 될 수 없지만 (14-ㄴ)에서 ‘철수’는 ‘바다의 사나이’(이를테면 해군)가 될 수 있다. 즉 (14-ㄱ)에서 ‘부산’은 ‘철수’의 거주지로서 行爲가 이루어지는 표면양식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지만 (14-ㄴ)에서 ‘바다’는 行爲 自體의 樣式이라고 할 수 있다. (14-ㄱ)은 ‘철수’의 ‘집’이 ‘부산’에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며 ‘부산’이 철수의 ‘거주’의 樣式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14-ㄴ)은 ‘철수’의 ‘삶’이 ‘바다’에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며 ‘바다’가 철수의 ‘삶’의 樣式을 결정한다. (14-ㄱ)의 ‘부산’과 (14-ㄴ)의 ‘바다’가 동사 ‘살-’에 통합되는 관계는 ‘부산’이나 ‘바다’가 동사 ‘살-’의 樣式이라는 점에 있으며 ‘부산’이 처소적 양식인 반면 ‘바다’가 行爲 自體의 樣式이라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하면 동사 ‘살-’이 나타내는 동작은 ‘부산’이나 ‘바다’의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살-’이 나타내는 동작은 ‘부산’이나 ‘바다’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에’는 그것이 動作의 處所의 樣式을 표시하거나 動作의 또 다른 樣式을 표시하거나 그것이 통합되는 명사에 의해 動作의 樣式이 제약되는 것임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動作의 樣式은 반드시 處所에 의해서만 제약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時間에 의해서도 제약될 수 있으며 時間 이외의 다른 요소에 의해서도 제약될 수 있으며 처소와 시간 그리고 그 이외의 다른 요소에 의해서 동시에 제약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처소나 시간 그리고 그 이외의 다른 行爲樣式은 動作에 대한 서로 다른 면에서의 제약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15) ㄱ. 철수가 10시에 왔다.
- ㄴ. 철수가 10시에 학교에 갔다.

(15-ㄱ)에서와 같이 ‘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에도 통합되어 나타날 수 있다. ‘에’가 이때 시간적인 처소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는 않는다. 시간과 공간이란 구별되는 것이다. '에'가 이론바 척격의 기능을 지닌 것이라면 (15-ㄴ)에서와 같이 척격이 동일한 문장에서 두 번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격이 문장 속에서 명사가 가지는 문법적인 위치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동일한 문장에서 같은 격이 두번 이상 나타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앞에서 논의한 대로 '10시에'와 '학교에'가 모두 動作의 樣式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함으로서 해석의 타당성을 얻고자 한다. 즉 '10시에'는 動詞 '가-'가 나타내는 動作의 時間的 樣式이며 '학교에'는 動詞 '가-'가 나타내는 動作의 空間的(處所的) 樣式이다. '에'가 한 문장 속에서 動詞가 지닌 모든 動作의 樣式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에'가 한 문장 속에서 두번 이상 나타난다고 해도 조금도 이상한 일은 아닌 것이다.

- (16) ㄱ. 철수가 자기에 나도 잤다.
 ㄴ. 철수가 올기에 나도 올었다.
 ㄷ. 철수가 보체기에 내가 달렸다.
 ㄹ. 철수가 온다고 하기에 내가 말렸다.
- (17) ㄱ. 나도 이제는 기다리기에 지쳤다.
 ㄴ.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에 달렸다.
 ㄷ. 우리의 목표는 언어의 원리를 공부함에 있다.

(16)과 같은 문장들에서 '에'가 나타나는 것을 대하게 되면 '에'의 척격적인 해결은 더욱 더 어려워진다.¹⁰⁾ 왜냐하면 문장의 주어인 '나'와 내포문 '철수가 자기, 철수가 올기, 철수가 보체기, 철수가 온다고 하기' 사이에는 어떤 척소적인 관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16)에서 '철수'의 動作은 '나'의 動作의 樣式이 되고 있다. 즉 '나'의 動作은 '철수'의 動作에 의해서 그 樣式이 제약되고 있는 것이다. (16)에서

10) '-기에'는 原因을 나타내는 어미라고 생각될 수도 있으나 名詞形語尾 '-기'와 '에'로 分析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와 마찬가지로 (17)에서도 ‘에’는 명사에만 통합되어 나타나지는 않는다. ‘에’는 명사에도 통합이 되지만 내포되는 명사화문이나 명사문에도 통합이 된다. (17)의 ‘에’ 역시 쳐격적인 관점에서 논의될 수 없다. ‘에’는 動詞 ‘자치-’, ‘있-’, ‘달리-’가 나타내는 動作이나 狀態의 樣式을 표시한다. (17-ㄷ)이 (17-ㄱ), (17-ㄴ)에서와는 달리 ‘에’가 所在를 표시할 수도 있는 것은 動詞 ‘있-’의 의미 때문이다.

(18) ㄱ. 그는 예술에 살았다.

- ㄴ. 그는 춤바람에 놀아났다.
- ㄷ. 이웃은 쌈 맛에 입는다.
- ㄹ. 이것은 신 맛에 먹는다.
- ㅁ. 사람은 제 멋에 산다.
- ㅂ. 그들은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불렀다.
- ㅅ. 그들은 돈에 울고 사랑에 울었다.
- ㅇ. 그들은 붉은 잠바에 청바지를 입었다.

(18)에서 ‘에’는 動詞 ‘살-, 놀아나-, 입-, 먹-, 맞추-, 울-’이 나타내는 動作이나 狀態의 樣式이 ‘예술과 제멋, 춤바람, 쌈 맛과 붉은 잠바, 신 맛, 반주, 돈과 사랑’에 의해서 제약되는 것임을 표시한다. 다시 말하면 ‘사는’ 樣式, ‘놀아나는’ 樣式, ‘입는’ 樣式, ‘먹는’ 樣式, ‘맞추는’ 樣式이 각각 ‘예술과 제멋’ ‘춤바람’ ‘쌈 맛과 붉은 잠바’ ‘신 맛’ ‘반주’ ‘돈’과 ‘사랑’ 임을 나타내어 준다.

‘에’가 지니는 쳐소적 의미인 處所性과 方向性은 선택적 쳐소의 의미로 통합되며 선택적 쳐소란 명사의 의미차질과 동사의 의미차질 사이에 쳐소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경우에만 나타나는 것으로서 ‘에’ 자체는 쳐소에 관한 한 중립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에’는 술어동사에 의해 나타나는 문형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다. ‘에’는 그것이 나타나는 문장의 술어동사가 자동사이거나 타동사이거나 상태동사이거나에 관계없이 나타나서 動詞가 나타내는 動作이나 狀態의 樣式을 표시하는 기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IV. 所在와 素材

이제 우리는 이론바 처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논의되어 온 또 하나의 형태 '에서'에 대하여 논의할 차례가 되었다.

- (19) ㄱ. 철수가 도서관에서 공부한다.
 ㄴ. 철수가 옆 방에서 잔다.
 ㄷ. 철수가 운동장에서 놀다.
 ㄹ. 철수가 쳐마밀에서 운다.

'에서'는 所在를 표시하는 것으로 논의되기도 하였다. (19)에서 '도서관, 옆방, 운동장, 쳐마밀'은 '철수'의 動作이 이루어지는 處所라고 할 수 있다. 이미 Ⅱ장에서 밝혔듯이 '所在'는 주어나 목적어의 所在이며 동시에 動作의 處所이기도 한 것이다. (19)에서 '에서'는 주어인 '철수'의 所在를 표시하기도 하며 동시에 動作의 處所를 표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때 '에서'는 所在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0) ㄱ. *철수가 학교에서 있다.
 ㄴ. *철수가 학교에서 간다.¹¹⁾
 ㄷ. *동상이 네거리에서 있다.
 ㄹ. 동상이 네거리에서 세워진다.

앞에서 살펴 본 (1), (2)에서는 '에'가 쓰여서 자연스러운 문장을 이루고 있었으나 (20)에서와 같이 '에'에 '서'가 통합되어 쓰이면 (20-근)의 경우에만 비교적 자연스러운 문장을 이룬다. 만약 앞에서 살펴 본 (1), (2)의 '에'가 '所在'를 나타내는 것들이며 동시에 '에서'가 '所在'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20)의 예문들은 모두 자연스러운 문장을 이루어 야 한다. 그러나 狀態를 나타내는 動詞 '있-'이 나타나는 (20-ㄱ), (20-

11) 이때의 '에서'가 출발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될 수 있다.

ㄷ)에서 조차 ‘에서’가 ‘所在’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들 문장의 부자연스러움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1-ㄱ), (2-ㄱ)의 ‘에’가所在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動詞 ‘있-’이 지닌 의미 때문이었다고 생각되며 動作을 나타내는 動詞 ‘세워지-’가 나타나는 (20-ㄹ)이 狀態를 나타내는 動作 ‘있-’이 나타나는 (20-ㄷ)보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은 ‘에서’가 본질적으로 所在 표시의 기능을 지니고 있지 않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 (21) ㄱ. 철수가 미국에서 왔다.
 ㄴ. 철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ㄷ. 철수가 방금 집에서 떠났다.
 ㄹ. 철수가 2층에서 떨어졌다.

(21)에서 ‘에서’는 動詞 ‘오-, 일어나-, 떠나-, 떨어지-’가 나타내는 動作의 處所가 ‘미국, 자리, 집, 2층’임을 나타내지도 않으며 주어인 ‘철수’의 所在가 각각 ‘미국, 자리, 집, 2층’임을 나타내지도 않는다. 다만 이때의 ‘에서’는 주어인 ‘철수’의 所在가 ‘미국, 자리, 집, 2층’이었음을 전제할 수는 있다.¹²⁾

‘에서’가 所在를 표시하는 기능을 지닌 것으로 생각된다면 ‘에서’는 공간적 處所의 의미를 가지는 명사에만 통합되어 나타날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에서’는 공간적 처소의 의미를 갖는 명사들에만 통합되는 것이 아니다.

- (22) ㄱ. 철수가 죽음에서 살아났다.
 ㄴ. 철수가 잠에서 깨어났다.
 ㄷ. 철수가 위기에서 벗어났다.

(22)에서 ‘죽음, 잠, 위기’ 등은 구체적인 처소를 나타내는 명사들이

12) ‘에서’가 이와같이 處所를 나타내는 명사에 통합되고 ‘가다, 오다, 떠나다, 떨어지다…’ 등의 場所移動을 나타내는 동사들과 함께 나타나면 출발점을 표시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없다. 이들 명사들은 공간적인 영역을 나타내는 명사들이라고 할 수 없으면서도 '에서'가 통합되어 매우 자연스러운 문장을 이루고 있다. 물론 이들 명사들에 처소(혹은 장소)의 의미자질을 전혀 부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에서'를 논의함에 있어서 명사의 처소적 의미자질에 제약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例들에서 더욱 잘 나타난다.

- (23) ㄱ. 고래표가 품질에서 단연 으뜸이다.
 ㄴ. 고래표가 맛에서 제일이다.

(23)의 '에서'는 所在를 표시하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품질, 맛'은 '고래표'의 所在도 아니며 '으뜸이-, 제일이-'의 處所도 아니다.

(19)와 (20-근)에서 '에서'는 場所를 나타내는 명사에 통합되어 있으며 그와 함께 나타나는 動詞가 場所移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에서'가 所在를 표시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때의 '에서'는 主語의 所在도 표시하며 動作의 處所도 동시에 표시하므로 '에서'가 所在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21)의 '에서'는 離脫(혹은 출발점)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것은 (21)의 '에서'가 主語의 所在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19), (20-근)과 (21)은 '에서'가 모두 場所를 표시하는 명사에 통합되었다는 것이 공통적이다. 그러나, (19), (20-근)에서는 장소이동을 나타내지 않는 동사들이 쓰인 반면 (21)에서는 장소이동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쓰였다는 것이 서로 다른 점이다. (19), (20-근)의 '에서'가 所在의 의미를 지니는 반면 (21)의 '에서'가 離脫의 의미를 지니는 것은 '에서'의 본질적인 기능이 所在와 離脫의 표시에 있기 때문이다 아니라 '에서'와 함께 나타나는 動詞가 場所移動을 나타내는가 나타내지 않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22)는 '에서'가 통합되는 명사들이 場所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19), (20-근), (21)과 다르다. (22)에서 나타나는 動詞 '살아나-' '깨어나-' '벗어나-' 등은 主語인 '철수'의 狀態가 '죽음'에서 '삶'으로, '잠'에서 '현실'로, '위기'에서 '안전'으로 移動하는 것을 의미한다. (21)이 主語의 場所移動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22)는 主語의 狀態移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1)의 '에서'가 주어의 所在를 전제한다면 (22)의 '에서'는 주어의 狀態를 전제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1)이 場所의 離脫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22)는 狀態의 離脫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에서'가 場所를 나타내는 명사에 통합되는가 狀態를 나타내는 명사에 통합되는가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23)의 '에서'는 所在도 離脫도 표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23)의 '에서'가 動詞에 대하여 표시하는 관계는 (19)와 (20-근), (21)과 (22)와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19), (20-근)에서 動詞들이 나타내는 動作은 主語가 어떤 場所에 所在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1)과 (22)에서 動詞들이 나타내는 動作은 적어도 주어가 어떤 場所에 있었음을 전제하거나 어떤 狀態에 있었음을 전제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23)에서 動詞가 나타내는 狀態는 (19), (20-근), (21), (22)에서와는 달리 主語가 어떤 場所에 있거나 어떤 狀態에 있음으로써 혹은 전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23)의 動詞가 나타내는 狀態는 主語 자체가 지닌 속성을 전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19)와 (20-근), (21)과 (22), (23)은 主語의 動作이나 狀態가 '무엇에서 비롯된 것'임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와 (20-근)은 動作이 주어의 所在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21)과 (22)는 動作이 주어의 所在를 전제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며 (23)은 狀態가 주어의 속성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타내어 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19), (20-근), (21), (22), (23)에서 '에서'는 기본적으로 動作이나 狀態

의 素材(source)¹³⁾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所在나 離脫(所在의 전제, 狀態의 전제) 등의 의미는 '에서'가 통합되는 명사의 처소적 의미자질과 動詞와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19), (20-己)은 主語의 所在가 動作의 素材가 되는 것이며 (21), (22)는 主語의 所在 전제가 動作의 素材가 되는 것이며 (23)은 主語의 속성이 動作의 素材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4) ㄱ. 이점에서 그가 옮다.
- ㄴ. 토끼표가 품질에서 앞서 간다.
- ㄷ. 많은 학생들이 악의 수렁에서 전져졌다.
- ㄹ.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에서 배려된 것이다.

(24)의 '에서' 역시 動作이나 狀態의 素材를 표시하고 있다. (24-ㄱ)은 狀態를 나타내는 動詞가 쓰였으며 (24-ㄴ), (24-ㄷ)은 移動을 나타내는 動詞가 쓰였고 (24-ㄹ)의 動詞는 狀態도 移動도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나 '에서'가 이들 動作이나 狀態의 素材를 표시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 (25) ㄱ. 철수가 열개 중에서 하나를 골랐다.
- ㄴ. 철수가 서랍에서 연필을 꺼냈다.
- ㄷ. 철수가 벽에서 그림을 떼었다.
- ㄹ. 철수가 입에서 쟁을 뱉았다.

(25)의 '에서'는 주어인 '철수'의 所在를 표시하지 않는다. 또한 動作의 處所를 표시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25)의 '에서'는 목적어의 所在를 전제할 수는 있다. (25)의 '에서'가 離脫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는 것은 그것이 목적어의 所在를 전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서'가 '무엇'의 所在를 나타내는가, '무엇'의 所在를 전제하

13) 양동희(1973)에서는 '에서'가 Outer Location, Starting Location(혹은 source)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여기서 Source의 의미는 출발점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는가 하는 것은 문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 (26) ㄱ. 철수가 다락방에서 밥을 먹었다.
ㄴ. 철수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 (27) ㄱ. 철수가 다락방에서 망치를 꺼냈다.
ㄴ. 철수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었다.
- (28) ㄱ. 철수가 상자에서 망치를 꺼냈다.
ㄴ. 철수가 가방에서 책을 꺼냈다.

(26)에서 ‘다락방, 도서관’은 주어인 ‘철수’의 所在이며 동시에 動作의 處所이기도 하다. 그러나 목적어 ‘밥’과 ‘책’의 所在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한편 (27)에서 ‘도서관, 다락방’은 주어인 ‘철수’의 所在일 수도 없으며 動作의 處所일 수도 없다. 또한 (28)에서 ‘상자’와 ‘가방’은 주어인 ‘철수’의 所在일 수도 없으며 動作의 處所일 수도 없다. (27), (28)의 ‘에서’는 목적어 ‘망치, 책’의 所在를 전제할 수 있을 뿐이다. (26)의 ‘에서’가 주어의 所在를 표시하는 반면 (27), (28)의 ‘에서’가 ‘주어’의 所在를 표시하지 않고 목적어의 所在를 전제하는 것은 (27), (28)의 動詞들이 移動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28)과는 달리 (27)은 일면 주어의 所在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27)의 ‘철수’와 ‘다락방, 도서관’ 사이의 관계와 (28)의 ‘철수’와 ‘상자, 가방’ 사이의 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27)에서 ‘철수’와 ‘다락방, 도서관’ 사이의 관계는 所在의 관계로서 파악될 수도 있지만 (28)에서 ‘철수’와 ‘상자, 가방’ 사이의 관계는 所在의 관계로서 파악될 수 없다.¹⁴⁾

(26), (27), (28)은 “A가 B에서 C를 V”의 동일한 문형을 가질 뿐만 아니라 動詞들의 의미자질이 [+motion]인 점에 있어서도 동일하며 ‘에

14) ‘철수’와 ‘상자’, ‘철수’와 ‘가방’ 사이의 처소적 관계를 굳이 살핀다면 ‘상자’나 ‘가방’은 ‘철수’의 所在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철수’가 ‘상자’나 ‘가방’의 所在가 될 수 있다. 註 4) 참조.

'서'가 통합되는 명사의 의미자질이 [+place]인 점에서도 동일하다. '에서'가 所在를 표시하는가 표시하지 않는가의 여부는 따라서 문형이나 명사나 동사의 의미자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에서'가 통합되는 명사가 동일한 문장 속에 나타나는 다른 명사의 所在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선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결국 '에서'는 所在표시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며 書寫 所在를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문장마다 所在의 內容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에서'가 지닐 수 있는 所在표시의 기능은 동일한 문장 속에 나타나는 명사와 명사, 명사와 동사 사이의 우연적인 遭遇에서 비롯되는 처소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26), (27), (28)에서 '에서'는 主語의 所在를 표시하거나 (혹은 전제하거나) 目的語의 所在를 표시하거나에 관계없이 動作의 素材를 표시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29) ㄱ. 철수가 학교에서 집까지 갔다.
- ㄴ. 철수가 1루에서 2루까지 갔다.
- ㄷ. 영희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새로 치장했다.
- ㄹ. 이 제품은 디자인에서 품질까지 완벽하다.

(29-ㄱ, ㄴ)의 '에서'는 그것이 통합되는 명사가 주어의 所在임을 표시하지도 않으며 動作의 處所임을 표시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때의 '에서'는 主語의 所在이었음을 전제할 수는 있다. (29-ㄱ, ㄴ)에서 '학교'와 '집', '1루'와 '2루'는 動作이 이루어지는 場所의 양쪽 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학교'와 '집', '1루'와 '2루' 사이의 공간적 영역은 動作의 處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와 '1루'에 통합된 '에서'는 출발점 혹은 離脫을 표시한다고 할 수 있다. (29-ㄷ)의 '에서'는 주어의 所在를 표시하지도 않으며 주어의 所在를 전제하지도 않는다.¹⁵⁾ 그러나 (29-ㄷ)의 '에서'는 그것이 통합되는 명사가 動作의 출발점임을

15) 왜냐하면 '철수'와 '머리', '발끝'은 所有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에서'가 통합된 '머리'가 주어인 '철수'의 所在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표시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머리’와 ‘발끝’이 (29-ㄱ, ㄴ)의 ‘학교’와 ‘집’, ‘1루’와 ‘2루’와 같이 구분되지 않는 공간적 연속체의 양쪽 끝으로서 인식되기 때문이다. (29-ㄹ)의 ‘에서’는 所在나 출발점을 나타내지 않는다. (29-ㄹ)을 意譯(paraphrase)하자면 “이 제품은 디자인에서. (성능에서, …… 품질(에서)까지 모두 완벽하다” 정도가 될 것이다. (29-ㄹ)의 ‘디자인’과 ‘품질’은 (29-ㄱ, ㄴ, ㄷ)의 ‘학교’와 ‘집’, ‘1루’와 ‘2루’, ‘머리’와 ‘발끝’과 같이 하나의 공간적 영역의 연속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제각기 독립된 영역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9-ㄱ, ㄴ, ㄷ)과 (29-ㄹ)의 ‘에서’가 출발점을 표시하는가 표시하지 않는가의 차이를 보여 주기는 하지만 ‘에서’가 動詞에 대하여 갖는 관계는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9-ㄱ, ㄴ, ㄷ)과 같이 動作의 素材가 연속되는 공간적 영역의 한쪽 끝에 있을 경우에는 ‘에서’가 출발점을 표시할 수도 있으나 (29-ㄹ)과 같이 動作의 素材가 독립적인 영역의 나열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에서’가 출발점을 표시할 수 없다.

- (30) ㄱ. 철수가 10시에서 12시까지 책을 읽었다.
 ㄴ. 철수가 5시에서 6시까지 영희를 기다렸다.

(30)에서와 같이 ‘에서’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들에 통합되면 動作의 시간적인 素材를 나타낸다. 이때 ‘에서’가 시간적인 출발점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은 ‘10시’와 ‘12시’, ‘5시’와 ‘6시’가 시간적인 연속체의 영역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10시’, ‘5시’가 각자 그 연속체의 한쪽 끝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에서’는 다음과 같이 매우 특이하게 사용된다.

- (31) ㄱ. 학교에서 운동회를 매년 개최한다.
 ㄴ. 국가에서 자격시험을 매년 실시한다.

(31)에서 ‘학교’나 ‘국가’는 문장의 主語로서 主格의 標識 ‘-가’가 통합될 것이 기대되지만 ‘에서’가 통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에서'는 '학교'나 '국가'와 같이 具體的인 實體를 가지지 않는 名詞에 통합되어 主屬의 위치에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것은 '에서'가 가지는 素材표시의 기능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¹⁶⁾ (31)의 '학교'와 '국가'는 각각 운동회의 개최, 자격시험 실시의 素材라고 할 수 있다.

V. 樣式과 素材

II, III章에서 우리는 '에'와 '에서'가 動作이나 狀態의 樣式과 素材를 각각 표시하는 형태임을 밝혔다. 이 章에서는 '에'와 '에서'를 비교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에'와 '에서'는 동일한 문장 속에 함께 쓰일 수 있다.

(32) ㄱ. 철수가 이번 선거에서 회장에 당선되었다.

ㄴ. 철수가 전년목에서 차에 치였다.

ㄷ. 관객수가 삼천명에서 사천명에 이르렀다.

(32) ㄱ, ㄴ의 '에서'는 動作의 素材가 '선거, 전년목'임을 나타낸다. 한편 (32) ㄱ, ㄴ의 '에'는 動作의 樣式이 '회장'과 '차'임을 나타낸다.

(32-ㄷ)의 '에서'와 '에' 역시 각각 動作의 素材와 樣式을 표시한다.

動詞 '이르-'는 항상 동작의 도착점을 요구하는 특성을 갖는 것으로서 (32-ㄷ)의 '삼천명'과 '사천명'은 각각 動作의 출발점과 도착점을 표시하기도 한다.¹⁷⁾ (32-ㄷ)의 '에서'와 '에'가 각각 출발점과 도착점을 표시하는 것은 '삼천명'과 '사천명'이 구분되지 않는 영역을 갖는 연속체

16) 동사 '개최하다' '실시하다'는 그 동작의 주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어야 자연스럽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31)에서 '학교' '국가'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이므로 주체 표지 '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에서'를 사용하여 그 동작이 '학교' '국가'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학교'나 '국가'는 구체적인 동작의 주체가 아니므로 주체 표지 '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에서'를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17) 양동휘(1973)에서 '에'는 inner locative, ending location으로 다루어졌다.
주 13) 참조.

의 양쪽 끝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動作의 樣式과 素材를 구별하는 것은 ‘서’의 統合여부에 달렸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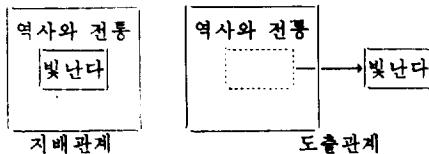
- (33) ㄱ. 우리학교는 역사와 전통에 빛난다.
 ㄴ. 우리학교는 역사와 전통에서 빛난다.

(33-ㄱ)과 (33-ㄴ)의 차이는 ‘에’와 ‘에서’가 각각 動作의 樣式과 素材를 표시한다는 점에 있다. (33-ㄱ)에서 ‘역사와 전통’은 ‘빛나-’의 의미영역을 지배하는 것으로서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33-ㄴ)에서 ‘역사와 전통’은 ‘빛나-’의 素材이며 ‘빛나-’는 ‘역사와 전통’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에서는 ‘역사와 전통’과 ‘빛나-’ 사이에 支配關係가 존재하지만 후자에서는 ‘역사와 전통’과 ‘빛나-’ 사이에 導出關係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⁸⁾

‘에서’는 기원적으로 ‘에 이서’의 발달임이 중시되어 所在 표시의 기능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에서’가 갖는 所在 표시의 기능은 동일한 문장 속에 나타나는 명사와 동사 사이의 우연적 遭遇에서 비롯되는 치소적 관계이며 ‘에서’는 所在에 관한 한 不定的이라고 할 수 있다.

- (34) ㄱ. 철수가 집에 있다.
 ㄴ. 철수가 집에서 공부한다.
 ㄷ. 철수가 상점에 있다.
 ㄹ. 철수가 상점에서 빵을 샀다.

18)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35) ㄱ. *철수가 집에 있어 공부한다.
 ㄴ. *철수가 상점에 있어 빵을 샀다.
- (36) ㄱ. 이 비행기가 파괴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ㄴ. 이 비행기가 파괴력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 (37) ㄱ. 철수는 경제적인 면에서 남보다 낫다.
 ㄴ. 철수는 경제적인 면에 있어 남보다 낫다.
- (38) ㄱ. 철수는 대인관계에서 땅점이다.
 ㄴ. 철수는 대인관계에 있어 땅점이다.

(34)의 '에, 에서'는 모두 주어와 動作(혹은 狀態)의 所在 혹은 處所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때의 '에서'가 所在를 나타내려면 (34-ㄴ, ㄹ)이 (35-ㄱ, ㄴ)과 같이 '에 있(有)어'의 구문으로 바뀌어 쓰여도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35)는 모두 어색한 문장들이다. 반면 (36), (37), (38)에서 각 ㄱ의 '에서'는 所在를 표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 ㄴ의 '에 있어' 구문으로 바뀌어도 자연스러운 문장들을 구성하고 있다. (35)의 어색함과 (36-ㄴ), (37-ㄴ), (38-ㄴ)의 자연스러움은 (34-ㄴ, ㄹ)의 '에서'가 所在를 표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해 줄 뿐만 아니라 '에 있어' 구문의 '있어'가 '有'의 처소적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는 사실도 입증해 준다. (36), (37), (38)에서 '에서'와 '에 있어'는 모두 動作이나 狀態의 素材를 표시한다. (36)에서 '이 비행기'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은 '파괴력'에 그 素材를 두고 있으며 (37)에서 '철수'가 '남보다 나'은 것은 '경제적인 면'에 그 素材를 두고 있으며 (38)에서 '철수'가 '땅점'인 것은 '대인관계'에 그 素材를 두고 있다.

'에서'는 '에'와 '있어(有)'의 결합에서 발달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에서'의 의미가 '에'와 '있(有)'의 의미들을 산술적으로 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에서'의 발달에는 '있(有)-'의 部分的인 虛辭化라는 要因이 작용하고 있었다고 생각되며 虛辭化의 결과 形成된 '에서'는 '에'와 '있(有)-'의 결합적 의미(즉 所在)와는 다른 새로운

의미(즉 素材)를 지니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39) ㄱ. 철수가 부산서 왔다.

- ㄴ. 철수가 침대서 왔다.
- ㄷ. 철수가 여행서 돌아왔다.
- ㄹ. 철수가 주머니서 돈을 꺼냈다.
- ㅁ. 철수가 시합서 이겼다.
- ㅂ. 그 빌딩은 멀리서도 보인다.

(40) ㄱ. 부산서(부산에서), 침대서(침대에서), 여행서(여행에서)……

- ㄴ. *빨리서(*빨리에서), *예쁘서(*예쁘에서), *먹서(*먹에서)……
- ㄷ. 예뻐서(*예뻐에서), 자고서(*자고에서), 울고서(*울고에서)……
- ㄹ. *쉽게서, *먹으나서……
- ㅁ. 둘에서, 둘이서, *둘서……

(39)에서와 같이 ‘에서’가 명사에 통합되지 않아도 ‘서’가 명사에 직접 통합되어 素材를 표시할 수 있다. 이것은 (40)이 보여 주듯이 ‘서’가 명사에 직접 통합되는 것은 ‘서’가 ‘에’를 지배 할 수 있는 환경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40-ㄱ, ㄴ)은 ‘에서’와 ‘서’가 명사 이외의 어간에는 직접 통합되지 않음을 보여 준다. (40-ㄷ, ㄹ)은 動詞의 일부 活用語尾 ‘-어, -고, -면’ 등에 ‘서’가 통합되어 나타남을 보여 준다.¹⁹⁾ 그런데 ‘서’는 (40-ㅁ)과 같이 수표시 명사에는 직접 통합되어 나타나지 않으며 주격의 ‘이’나 처격의 ‘에’에 통합되어 나타난다. 수표시 명사에 ‘서’가 직접 통합되지 않는 것은 (40-ㄱ)에서와는 달리 ‘서’가 ‘이’와 ‘에’를 모두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41) ㄱ. 둘이서 이 조각을 제작했다.

- ㄴ. 둘 중에서 하나가 도망갔다.
- ㄷ. 둘에서 하나를 빼면 하나다.

(41)에서 ‘둘이서’의 ‘서’와 ‘둘 중에서’, ‘둘에서’의 ‘서’가 ‘有’의

19) 이 경우에 ‘서’의 기능이 무엇인지는 더 고구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임홍빈(1975) 참고,

의미를 보존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전자가 ‘들이 있어’의 발달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둘 중에 있어’, ‘둘에 있어’의 발달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²⁰⁾

‘에’ ‘에서’는 문형이나 動詞가 지닌 통사적인 특성에 따른 제약을 받지 않는다. 動詞가 지니는 自動性, 他動性, 狀態性 등의 특성에 관계 없이 ‘에’ ‘에서’가 쓰인다.

- (42) ㄱ. 철수가 영수를 핫김에 때렸다.
ㄴ. 철수가 손잡이를 열결에 놓쳤다.
- (43) ㄱ. 철수가 학교에 갔다.
ㄴ. 철수가 말에 뒀다.
- (44) ㄱ. 철수가 학교를 갔다.
ㄴ. 철수가 말을 뒀다.

(42)에서 ‘철수’는 動作의 주체이며 ‘영수’ ‘손잡이’는 動作의 對象이고 ‘핫김에’ ‘열결에’는 動作의 樣式이라고 할 수 있다. (43)에서 ‘학교’ ‘말’은 動作의 處所의 樣式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44)에서 ‘학교’ ‘말’은 動作의 對象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자가 (43)과 (44)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는 통사적인 제약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3), (44)에서 動詞의 自動性, 他動性의 여부가 ‘을’과 ‘에’의 선택을 결정하지 않는다.

- (45) ㄱ. 이점에서 우리는 정당했다.
ㄴ. 인간만이 생존경쟁에서 살아 남는다.
ㄷ. 밀음은 사랑에서 출발한다.
ㄹ. 그는 결망 속에서 용기를 되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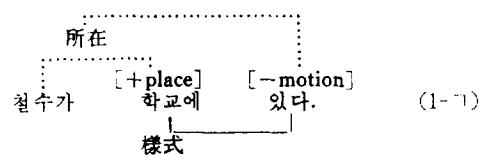
(45)에서 ‘이점, 생존경쟁, 사랑, 결망 속’은 動作(혹은 狀態)의 素

20) 高永根(1968)에서 ‘서’는 與同性을 띤 사람의 數爻를 表示하는 單語에 불어 그것이 行動의 主體됨을 表示하는 기능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김민수(1970)에서는 명사가 集團을 나타낼 때 ‘서, 에서’가 主格을 표시할 수 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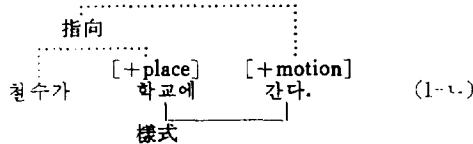
材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에서’ 역시 動詞의 통사적인 특성에 의해서 제약되지 않는다. (45-ㄱ)는 狀態性의 動詞가 쓰이는 경우이며 (45-ㄴ, ㄷ)은 自動性의 動詞가 쓰이는 경우이고 (45-ㄹ)은 他動性의 動詞가 쓰이는 경우이다. (45)는 ‘에서’가 動詞의 狀態性, 自動性, 他動性 여부에 관계없이 쓰여서 모두 動作(혹은 狀態)의 素材를 표시하고 있다.

결국 ‘에’ ‘에서’는 문장 속에서 각각 動詞가 나타내는 動作(혹은 狀態)의 樣式과 素材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에’ ‘에서’가 통합되는 개개의 명사들은 제각기 독립적으로 動詞와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명사들 사이에 혹은 이들 명사들과 문장 속의 다른 명사들(예컨대 주어, 목적어 등으로 쓰이는 명사들)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에’ 혹은 ‘에서’가 통합되는 명사와 문장 속의 다른 명사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는 動詞를 매개체로 하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 관계는 이들 명사의 특성뿐만 아니라 動詞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될 수 밖에 없으며 동일한 動詞가 쓰인 경우에라도 ‘에’ 혹은 ‘에서’가 통합된 명사와 문장 속의 다른 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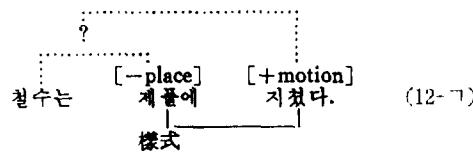
(46) 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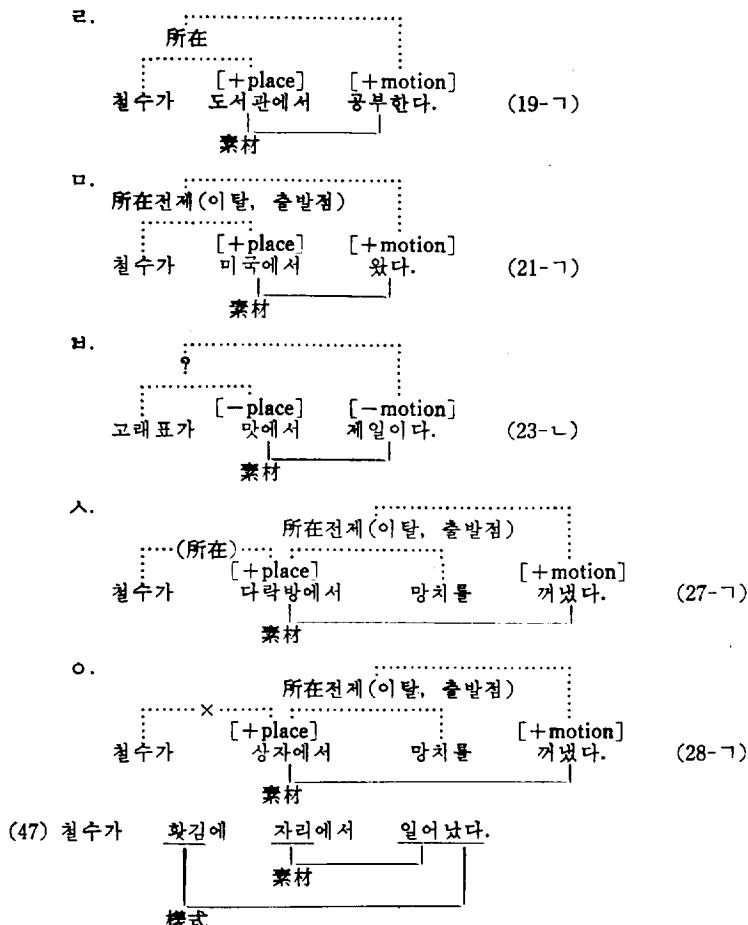


1-



ㄷ.





사이의 관계는 달리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46)의 예들이 보여 주듯이²¹⁾ 所在, 所在前提(혹은 離脫, 出發點), 指向 등의 의미는 문장 속에 쓰인 動詞의 性格이나 名詞의 性格에 따라

21) 46)의 예들은 이미 앞에서 언급되었으므로 이를 각각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달리 나타나는 것으로서 ‘에’와 ‘에서’가 본질적으로 이들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47)에서와 같이 ‘에’, ‘에서’는 제작기 독립적으로 동사와 관계를 맺으면서 動作(혹은 狀態)의 樣式과 素材를 표시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계는 ‘에’ ‘에서’ 뿐만 아니라 이론바 격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논의되는 여타의 것들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국어 문장구조의 특징으로서 二重主語文이 지적되는데 격의 범주를 다루는 측면에서 보면 二重主語가 인정되는 수 밖에 없다. 그러나同一한格이 하나의動詞를 가진 문장에 두번 이상 나타나는 구조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영희가 얼굴이 예쁘다’라는 문장에서 ‘영희’와 ‘얼굴’은動詞‘예쁘다’와 관련하여 ‘누구’, ‘무엇’에 각각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나 ‘무엇’은 형식적으로 이론바 주격의 형식으로 나타나지만兩者的‘예쁘다’에 대한 관계는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누구’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엇’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어에서 ‘에,에서’를 비롯한 격의 범주가 전혀 격적인 기능을 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어떤 언어에서든지 하나의 문장 속에 ‘주격, 목적격…’ 등으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V. 結論

국어의 문법범주들로서 논의되는 것들 중에 격범주에 대한 논의만큼 경직성을 띠고 있는 것도 없었다고 생각된다. ‘에’ ‘에서’에 대한 논의의 경우 그것들이 처소 표시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아닌)이 논자들의 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처격의 격적인 의미와 처격 표지가 통합됨으로서先行名

詞가 갖게 되는 관계의미를 구별하면서도 치격의 격적인 의미 자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주로 所在, 指向, 離脫 등의 치소적 관계의미만을 다루게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상 본고에서의 논의를 요약함으로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1) 所在와 指向은 '에'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없다. '所在'란 주어(혹은 動作主體)의 所在이면서 동시에 動作의 處所를 의미하며 指向이란 주어의 指向이며 同時에 動作의 指向임을 의미한다.

所在나 指向은 선택적 치소의 의미로서 통합될 수 있으며 선택적 치소란 '에'가 통합되는 명사와 문장 속의 다른 명사(예컨대 주어, 목적어 등), 동사와의 치소적 관계 속에서만 얻어지는 의미이다.

2) '에'는 動作 혹은 狀態의 樣式을 표시한다. '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에만 통합되는 것이 아니며 動詞의 의미자질에 따라 그 기능이 달리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에'는 動詞가 지닌 통사적인 특성(즉 타동성, 자동성, 상태성)에 의해 문장에서의 선택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에'가 所在나 指向 또는 도착점을 표시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명사에 통합되는가, 어떤 動詞와 어울려 문장 속에 나타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우연적인 의미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3) '에서'는 動作이나 狀態의 素材(source)를 표시한다. '에서'는 所在나 離脫, 출발점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다루어져 왔으나 그것은 '에'와 마찬가지로 치소적인 관점에서 얻어진 결과였다. '에서' 역시 그것이 통합되는 명사의 의미자질이나 動詞의 의미자질에 따라 그기능이 달리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에서'가 '所在를 표시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온 것은 '에서'가 '에 이서'의 역사적 발달형이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에서'의 의미가 '에'와 '이서(有)'의 산술 결합적인 의미라고 할 수는 없다. '에서'는 '에 이서'에서 '잇(有)-'의 部分的인 虛辭化的 결과 '에'와 '이서'의 산술결합적 의미(즉 所在)를 가지지 않고 動作의 素材를 표시하는 새로운 기능을 가지게 되

었다고 생각된다.

4) ‘에’와 ‘에서’는 문장 속에서 제각기 動詞와 관계를 맺으면서 動作 혹은 狀態의 樣式과 素材를 표시하는 기능을 지닌다. ‘에’, ‘에서’가 통합되는 명사와 문장속의 다른 명사들(주어, 목적어 등)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동일한 문장 속에서 명사들 사이의 관계는 動詞를 매개체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 관계는 명사들의 특성 뿐만 아니라 動詞의 특성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것이다. 所在나 指向, 離脫, 출발점 등의 의미는 이와 같이 명사나 동사의 특성에 의하여 다양하게 나타나는 의미들이므로 이들 의미가 ‘에’나 ‘에서’가 지닌 기본적인 의미는 아닌 것이다.

참 고 문 헌

高永根(1978), “主格動詞의 한 種類에 대하여,” 「李宗寧博士領壽紀念論叢」。

金敏洙(1970), “國語의 格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9·50, 国어国文學회。

金昇坤(1978), 「韓國語 助詞의 通時的研究」, 大提閣。

閔賢植(1977), “國語助詞와 格에 대하여—意味格, 成分格 및 體言化機能을 中心으로—” 先清語文 8,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國語教育科。

朴良圭(1972), “國語의 處格에 대한 研究,” 「國語研究」 27.

———(1965), “所有와 所在,” 「國語學」 3.

신익성(1968), “격에 관하여,” 「한글」 141, 한글학회。

안명철(1982), “處格 ‘에’의 意味,” 「冠岳語文研究」 7, 서울大學校 人 文大學 國語國文學科。

양동희(1973), “Inner and Out Locatives in Korean,” 「語學研究」 9-1.

이기동(1981), “조사 ‘에’와 ‘에서’의 기본의미,” 「한글」 173·4, 한글

학회.

- 任洪彬(1974), “{로}와 選擇의 樣態化,”「語學研究」10-2.
——(1975), “不定法 {어}와 狀態陳述의 {고},”「논문집」8, 国민대학.
최현배(1977), 「우리 말본」(여섯번째 편집), 正音社.
洪允杓(1978), “方向性 表示의 格,”「國語學」6.
Fill more, G.J. (1968), “The case for case”, 「Universals in Linguistic Theory」(ed. by Emmon Bach and Robert T. Harms),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Hockett, C.F. (1958),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Oxford & IBH.
Stockwell, R.P. (1977), 「Foundations of Syntactic Theory」, Prentice-Hall Inc.